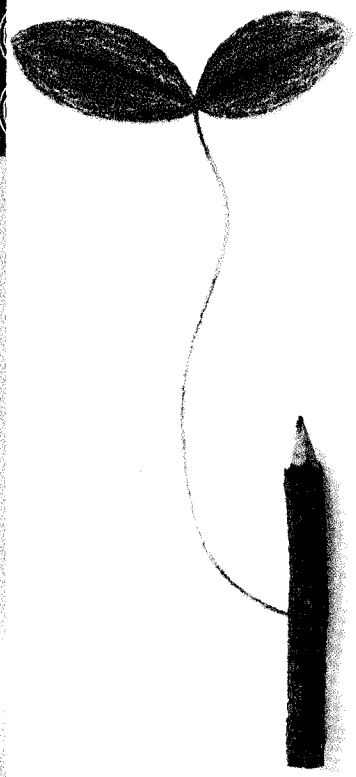
글 박연숙 | 본지기자 |

결핵균 발견으로 결핵퇴치의 길이 열리다



*** 1882년 3월 24일. 독일 베를린의 한 실험실. 중년에 접어든 한 학자의 눈빛에 섬광이 스친다. 이 학자는 오늘날 현대의학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한 로버트 코흐이고, 이날의 역사적 사건은 바로 기원전 7천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인류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결핵균 발견이다.

세계보건기구와 IUATLD는 1982년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100주년을 맞아 3월 24일을 "World TB day"로 지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이 인류의 역사에 남긴 족적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결핵은 기원전 7천년 전 기록에도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인류와 함께해 온 질병이었으나 코흐의 결핵균 발견 이전까지는 유전병이니, 만성

01_1982년 3월 24일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행사. IUATLD 사무총장 루이옹 박사의 "세계의 결핵"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400명 가까운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혹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치부되던 터였다.

1885년 베를린대학 위생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코흐는 그 후 결핵균의 발견과 치료법에 몰두해 마침내 결핵균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만천하에 발표하였다. 코흐는 또한 사람에게서 분리해 배양한 결핵균을 토끼에게 접종하면 토끼가 결핵에 걸리고, 폐 뿐만 아니라 위장, 피부, 뼈까지도 침범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니, 결핵사에서도 의학사에서도 길이 남을 만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3월 24일은 제28회 '결핵 예방의 날' 이다. 세계보건기구와 IUATLD 공식 명칭은 "World TB day"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결핵의 날'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이 날을 기념하는 기본 취지가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자는 의미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대한결핵협회는 올해부터 "결핵 예방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열린다. 우선 3월 21일에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릴리,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

휘자 금난새 씨와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그 이전인 3월 17일에는 대한결핵협회 주최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결핵 검진 및 홍보물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2009년도 국회 검진 및 전시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 당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오전부터 결핵퇴치를 위한 거리캠페인이 시청 앞 광장 일대와 대한결핵협회 시도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표창, 복십자대상 시상, 홍보대사 위촉식 등이 진행된다.

로버트 코흐가 결핵치료의 길을 열었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World TB day"는 회가 거듭될수록 수많은 결핵환자들의 축제로,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해 결핵 예방을 날을 기해 결핵은 함께 치료해야 하고, 퇴치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

BERLINER
KLINISCHE WOCHENSCHRIFT.
Organ für practische Aerzte.
Montag, den 10. April 1882. № 15.

02_1882년 3월 24일 로버트 코흐는 결핵균의 발견을 발표했으며, 사진은 그 논문 "결핵의 원인론" 첫 페이지.

03_코흐에 의한 결핵균의 발견은 결핵과의 오랜 싸움에서 쟁취한 인류의 위대한 개가였다. 결핵균의 발견으로 결핵의 진단학, 예방과 치료법 등이 발전될 수 있었다. 사진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코흐, 원내는 확대한 결핵균.